

결과술어구문의 어휘-통사적 분석

유은정

단독/한국외국어대학교

You, Eun-Jung (2011), The lexical-syntactic analysis of resultative construction.

Abstract This study deals with the adjectival resultative construction interpreted as 'X₁ CAUSE [Y₂ BECOME Z₃]'. In Spanish, it is impossible to construct this construction with adjectival secondary predicate unlike other languages, especially English. The resultatives are secondary predicates indicating the result of action described by the primary predicate. Contrary to the depictives, the resultative predicate maintains lexically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ain verb. Therefore, through the structural approach of adjunct predication we don't have access to all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sultative construction. That's why it's necessary to assume the lexical-syntactic derivation and to argue that the lexicon and the syntax are related directly. Based on lexical property of verbs, I argue the lexicalization of motion event across different kinds of languages discussed in Talmy(1985; 2000) and Talmy's typological distinction between verb-framed and satellite-framed languages for verb roots with respect to the expression of motion events. Following Talmy(1985; 2000) and Tenny(2000), I propose that the verb-framed languages, such as Spanish, express core predicate on the verb. And I claim that the resultative secondary predicates of pseudo-resultative construction modify and emphasize the path element conflated on the verb.

Key words Resultative predicate, Pseudo-resultative, Verb-framed language

결과술어, 유사 결과술어, 동사형 언어

I. 서론

본 연구에서는 문장 내의 형용사 술어를 통해 결과적 상태를 표현하는 소위 형용사 결과술어구문을 언어에 따른 차이를 바탕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영어의 경우는 'John wiped the table clean.' 과 같이 동사 'wipe'의 동작이 목적어 'the table'의 상태가 'clean'이 되도록 한다는 해석이 이루어지는 결과술어구문의 형성이 자유롭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이와 동일한 의미의 'Juan frotó la mesa limpia.'와 같은 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 따라서 스페인어에서는 영어와 달리 결과술어구문의 형성이 불가능한 이유를 의미-통사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스페인어에서 나타나는 일부 결과적 의미로 해석 가능한 구문들이 지니는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Talmy(1985; 2000)의 어휘화 유형 이론에서 제안한 동사형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형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로의 분류를 통해, 스페인어에서는 의미요소가 어떠한 구조로 어휘 형성을 이루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어휘화 유형을 결과술어구문의 형성에 적용하여 스페인어 결과구문의 통사적 도출에 대한 새로운 제안을 하고자 한다.

II. 결과술어구문

1. 스페인어 결과구문의 특징

문장에서 주 동사(main verb)의 행위가 대상(object)의 상태를 야기(cause)하는 소위 결과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을 형성하는 데 있어 스페인어는 다른 언어들과는 상이한 특징을 나타낸다. 영어는 형용사를 이차술어(secondary predicate)로 도출하여 결과의 의미를 표현하는 다음 예문과 같은 결과술어 구문이 가능하다.

- 1) a. Ethan hammered the metal flat.
b. The river froze solid.
c. She cooked them dry.

d. Ayala laughed herself sick.

(Demonte & Masullo 1999, 2492)

(1)의 예문에서 나타난 ‘flat’, ‘solid’, ‘dry’, ‘sick’ 와 같은 형용사들은 주 동사의 행위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구문의 술어로 각각 자신의 주어와 함께 주어-술어관계를 형성하는 이차술어이다.

그러나 스페인어는 (1)과 같은 결과구문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용사를 이차술어로 취하는 다음 (2a, c)와 같은 문장이 비문이다.

- 2) a.*Ethan martilleó el metal plano.
- b. Ethan martilleó el metal (hasta que se puso plano).
- c.*El río se congeló sólido.
- d. El río se puso sólido al congelarse.

(Demonte & Masullo 1999, 2491)

(2b)와 같이 결과구문을 주 동사와는 별도의 부사절로 분리하여 표현하거나 (2d)와 같이 결과적 상태의 의미를 주 동사로 표현해야 한다.

스페인어의 경우, 형용사를 이차술어로 도출하여 문장 내의 주어나 목적어와 주어-술어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구조이다.

- 3) a. Pedro llevaba rotos los zapatos.
- b. Juan tomó el té caliente.
- c. Los soldados llegaron cansados.
- d. El niño duerme tranquilo.

(Hernanz 1988, 7-13)

(3)의 예문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형용사 술어 ‘rotos’, ‘caliente’, ‘cansados’, ‘tranquilo’ 는 각각 자신의 주어로 문장의 목적어인 ‘los zapatos’, ‘el té’, 문장의 주어인 ‘los soldados’, ‘el niño’ 와 함께 절의 해석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3)의 예문은 (2)의 구문들과는 달리 형용사 이차술어가 주 동사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구문을 이루고 있지 않다. 이들 술어는

주 동사의 동작, 행위와는 무관하게 자체의 주어-술어의 관계 속에서 독립된 의미를 형성한다. 다시 말해, (3a)와 같은 경우, ‘빠드로가 신발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결과로 신발이 망가졌다’는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빠드로가 신발을 가져왔는데 그 신발의 상태가 망가져 있었다’는 해석만이 가능하다. (3b)의 경우도 ‘후안이 차를 마신 결과로 차가 뜨거워진 상태로 변화되었다’는 해석은 불가능하며, ‘후안이 차를 마셨고, 그 때 차는 뜨거웠다’는 해석만이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구문들은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결과술어구문과는 구별되는 묘사술어(depictive predicate)구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스페인어는 묘사술어구문은 가능하지만 결과술어구문의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스페인어가 형용사 술어를 통해 결과적 의미를 표현하는 구문을 형성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4) a. Pedro [pintó la casa verde/tiñó los pantalones negros].
 b. Este detergente lava muy blanco.
 (Demonte & Masullo 1999, 2492)

(4)에서 형용사 ‘verde’, ‘negros’, ‘blanco’는 주 동사인 ‘pintar’, ‘teñir’, ‘lavar’의 동작의 결과로 목적어의 상태가 변화된 것을 나타내는 결과술어라고 할 수 있다. 즉, (4a)의 경우 ‘집을 칠한 결과로 집이 초록색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결과를 표현한다. 또한 다음 (5)의 예문을 살펴보자.

- 5) a. Lava esa camisa bien lavada y luego pláñchala bien planchadita.
 b. Durmió una siesta bien dormida.
 c. Masticó el pollo chiquitito.
 d. Come la carne bien masticada.
 (Demonte & Masullo 1999, 2493)

(5)에서 사용된 형용사 ‘lavada’, ‘planchadita’, ‘dormida’, ‘chiquitita’, ‘masticada’는 문장 내 이차술어이며 주 동사의 행위의 결과로 변화된 상태

를 표현하는 결과술어구문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5c)와 같은 예문은 ‘답을 씹어서 그 결과로 답을 잘게 만들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앞서 영어의 예문 (1)에서 살펴보았던 결과술어구문은 주 동사와 결과술어 사이에 의미적 연관성이 없이 도출되는 구문인 반면, 스페인어의 예문 (4)는 주 동사의 행위로 말미암아 그 결과가 미루어 짐작되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으며 동일한 의미망 속에 포함된 어휘를 사용하고 있다.¹⁾ 동사 ‘pintar’는 색깔을 예상하게 하며, ‘lavar’는 ‘blanco’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동작이라고 본다. 즉 주 동사와 완전히 의미적으로 분리된 다른 상태를 나타내는 술어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5)의 예문에서는 형용사 술어는 결과의 의미를 반복 혹은 더 과장되게 표현하거나 결과의 정도에 있어 보다 더 진행된 단계를 표현한다.²⁾ 이러한 의미는 이차술어인 형용사를 부사 ‘bien’이 수식하거나 축소사를 통해 표현된다. 결국 (4)와 (5)의 구문은 주 동사의 의미와 연관된 술어가 도출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결과구문과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형용사로부터 파생된 동사가 존재하며 이 동사가 결과적 의미를 표현한다. 예를 들어 형용사 파생동사인 ‘aflojar’, ‘engordar’와 같

1) Washio(1997)는 [x CAUSE [y BECOME z] BY [x ‘verb’ y]]의 구조에서 동사와 이차술어 z의 의미가 서로 완전하게 독립적인 경우를 강 결과술어구문(strong resultatives)이라고 부른다.

- (i) a. The horses dragged the logs smooth.
- b. The joggers ran the pavement thin.
- c. *John-wa kinzoku-o pikapika-ni tatai-ta.
 ‘John pounded the metal shiny.’
- d. *Juan martilleó el metal plano.

(Washio 1997, 7-35)

영어는 (ia, b)와 같은 강 결과술어구문을 허가하지만, 일어, 스페인어 등은 각각 (ic, d)와 같이 주 동사와 이차술어가 서로 의미적으로 무관한 경우는 비문이 되며 의미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소위 약 결과술어구문(weak resultatives)만을 허가한다.

2) Demonte(1991)는 이러한 술어를 동족 술어(cognate predicates)라고 부른다. 그리고 Demonte & Masullo(1999)는 유사 결과술어(pseudo-resultative predicates)라고 부른다.

은 동사들은 내포된 형용사 ‘flojo’, ‘gordo’의 상태가 되었음을 동사 자체에서 표현하고 있다.

- 6) a. El tornillo no está flojo, aflójalo.
b. El granjero engordó los pollos.

(Gumiel, M. *et al.* 1999, 114-115)

이때 결과의 상태를 표현하는 이차술어의 역할이 파생동사의 형성을 통해 동사에 결합되어 동사에서 결과의 의미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차술어구문과 동일하게 형용사 파생동사를 형성할 수 있는 형용사 역시 상태술어(stage-level predicate)만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스페인어는 형용사 술어를 이용한 일반적 묘사술어구문의 형성은 자유로운 반면, 결과술어구문의 형성에 있어서는 영어와는 달리 제약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과술어 형성과 어휘-통사적 분석

통사론과 어휘목록(lexicon) 사이의 관계를 밝히는 것은 언어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Hale & Keyser(1993)는 이 둘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두 요소를 관련시킬 수 있는 작용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어휘 형성에 통사론이 포함된다는 논의는 어휘표현을 통사구조에 적용시킴으로써 이 둘을 연결시킬 요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도록 하였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예로 본 연구에서는 결과구문의 형성을 다루고자 하며 이를 어휘-통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사실상 기존의 술어구문의 분석에서 결과술어는 그 도출이 수의적이기 때문에 주 동사의 주술관계와는 별도의 주술관계를 형성하는 이차술어로서 묘사술어와 함께 분석되어왔다. 그러나 결과술어는 묘사술어와는 의미-통사적으로 차이점을 갖는다. 결과술어는 의미적으로 주 동사의 행위의 결과로 나타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주 동사에 의존적이다. 또한 통사

적으로도 주 동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문장 내에서 한 개의 결과술어만이 도출 가능하다는 점은 문장 내에서 여러 개의 묘사술어의 도출이 허용된다는 점과 구별된다. 그리고 어순에 있어서도 결과술어는 반드시 묘사술어에 앞선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이 주 동사와 보다 강하게 연계되어 있는 결과술어를 분석하기 위해 통사적으로 부가적 요소라는 측면만으로는 만족스러운 분석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결과술어의 분석을 위해 의미 요소들이 결합하는 어휘 형성의 과정과 통사적 도출을 결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Hale & Keyser(1993)의 논의를 바탕으로 어휘 형성에는 의미적 측면뿐만 아니라 통사적 측면이 포함되며, 결과구문의 형용사술어 형성과 형용사 파생동사의 형성은 어휘-통사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³⁾

동사 자체만으로는 문장에서 지니는 모든 정보를 다 표현할 수 없다. 따라서 의미적 정보를 통사적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표현해 주어야 한다.

- 7) a. John hammered the metal.
- b.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예를 들어 (7a)에서 동사 'hammer' 에는 'the metal' 의 마지막 변화된 상태를 야기하는 원인자(CAUSE)의 의미요소가 없다. 따라서 단순히 '존은 금속을 두들겼다' 는 동작의 의미로 해석된다. 반면에 원인자의 의미요소는 결과

3) 형용사 파생동사의 형성에 있어 동사는 보충어로 상태술어만을 요구한다. Gumiel, M. et al.(1999)은 개별술어(individual level predicate)인 'modesto', 'honesto' 와 같은 형용사의 파생동사로 *enmodestar' 나 *honestar' 의 형성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스페인어의 형용사 파생동사의 구문에서 'demasiado' 가 수식하는 것은 동사가 아닌 형용사가 표현하는 결과적 상태이다.

(i) Juan endulzó demasiado el café.
(Gumiel, M. et al. 1999, 119)

결국 'endulzar' 의 파생동사의 어휘형성은 통사적 도출의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형용사를 수식하는 'demasiado' 의 도출 단계가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술어가 도출되는 (7b)의 ‘hammer’ 에는 결합되어, ‘손은 금속이 납작해지도록 두들겼다’ 는 의미로 해석될 것이다. Levin & Rappaport Horav(1995)는 결과구문의 해석은 복합적으로(compositionally) 도출된다고 보았다. 즉 (7b)는 ‘cause the metal to become flat by hammering it’ 으로 해석되어 움직임을 야기하는 원인자, 움직이는 이동체(Figure), 움직임의 기준이 되는 배경(Ground), 움직임의 경로(Path), 움직임의 방법(Manner) 등의 의미요소가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결과의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Beck & Snyder(2001)는 여러 언어들을 분석하여 ‘동사+형용사 결과술어’의 구조를 허용하지 않는 언어는 목표(Goal)의 전치사구(PP)를 통해 완료성(accomplishment)을 표현하지 않으며, 그 반대로 목표의 PP로 완료성을 표현하지 않는 언어 역시 ‘동사+형용사 결과술어’의 구조를 허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언어에 따라 영어, 일본어, 한국어, 헝가리어, 독일어 등은 이를 허가하지만, 스페인어, 불어, 이태리어 등은 이를 모두 허가하지 않는다고 분석하였다. 즉, 결과의 의미는 경로의 PP구조와 서로 통한다고 할 수 있겠다. 방향성(directionality)의 개념이 동사의 행위의 최종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는 것이다. 이것은 목표의 PP와 결과술어가 서로 동일한 개념으로서 통사적 현상에 적용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 Goldberg(1991)는 목표의 PP와 결과술어에 동일한 제약이 적용되고 결과술어는 목표의 PP가 도출된 구문에서는 도출이 불가능하다는 다음의 예문을 통해 이 두 요소의 도출이 동일한 위치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8) a. *The girl showed her dog to John crazy.

b. *John put the picture in this room ruined.

(Gumiel, M. *et al.* 1999, 115)

Goldberg & Jackendoff(2004)는 원인자가 야기한 동작(caused-motion)으로 동사의 하위 사건(subevent)을 표현하는 구조를 결과구문의 한 형태로 분석하였다.

- 9) a. Bill watered the tulips flat. (Causative property resultative)
 Syntax: NP₁ V NP₂ AP/PP₃
 Semantics: X₁ CAUSE [Y₂ BECOME Z₃]
- b. Bill rolled the ball down the hill. (Causative path resultative)
 Syntax: NP₁ V NP₂ PP₃
 Semantics: X₁ CAUSE [Y₂ GO Path₃]
- (Goldberg & Jackendoff 2004, 563)

이때 (9b)의 경로를 표현하는 PP가 (9a)의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결과의 AP/PP 술어와 동일한 기능을 한다고 보았고, 결국 두 요소의 생성 위치가 동일하며 목표와 결과술어는 함께 도출될 수 없는 것이다.

III. 어휘화(lexicalization) 유형

1. 동사형 언어(verb-framed language)와 위성형 언어(satellite-framed language)

Talmy(1985; 2000)는 결과술어의 어휘 형성 과정에서 의미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하는 방식이 언어에 따라 동일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모든 언어에는 움직임의 사건(motion event)을 표현할 때 동사의 어근(root)이 어휘화(lexicalization)되는 유형이 있으며 언어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복합적 사건의 개념상의 구조가 통사적 구조로 사상(mapping)되는 특징이 다양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움직임의 사건은 움직임(Motion), 경로(Path), 이동체(Figure), 배경(Ground), 방법(Manner), 원인자(Cause)의 의미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의미적 요소가 어휘화의 과정에서 각기 다른 융합(conflation) 구조를 통해 다양한 어휘 유형으로 나타나는 것이다.⁴⁾ Talmy(1985; 2000)는 동사를 형성하는 방식에 있어 언어에 따른 상이한 어휘 형성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4) 이러한 의미적 요소는 문장에서 동사, 부치사(adposition), 종속절, 위성의 요소(satellite) 등으로 발화되는 어휘를 형성하게 된다.

- 10) a. Motion + Co-Event conflation
:English, Indo-European(romance는 제외),
Chinese, Finno-Ugric, Ojibwa, Walpiri
- b. Motion + Path conflation
:Romance(Latin은 제외), Korean, Japanese, Semitic,
Polynesian, Nez Perce, Caddo
- c. Motion + Figure conflation
:Atsugewi, Navaho

(10a)에 속하는 영어는 움직임과 방법, 움직임과 원인자를 융합하는 어휘화의 유형을 나타낸다. 영어의 경우는 움직임의 동사에 움직임의 사건과 함께 나타나는 사건, 즉 방법이나 원인의 사건이 함께 융합되어 동사의 어휘화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영어에는 (11)의 예문을 통해 보듯이 이동 방법 동사 어휘가 많다는 것이다. (10b)에 속하는 스페인어는 움직임과 경로가 함께 동사에 융합되어 어휘화되는 언어 유형이다. 따라서 스페인어에는 (12)의 예문과 같은 이동 경로의 동사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다.

- 11) a. The rock slid/rolled/bounced down the hill.
 - b. The lamp blew off the table.
 - c. The rope hung across the canyon from the two hooks.
- (Talmy 2000, 27-28)

- 12) a. La botella entró a la cueva (flotando).
 - b. La botella salió de la cueva (flotando).
 - c. Saqué el corcho de la botella retorciéndolo.
- (Talmy 2000, 49-51)

Talmy(1985; 2000)는 움직임의 경로가 동사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언어를 동사형 언어로 분류하였고, 움직임의 방법이 동사에 융합됨으로써 경로는 주변요소로 도출되는 언어를 위성형 언어로 분류하였다.⁵⁾

5) 한국어는 (10b)의 분류에 따르면 스페인어와 동일한 동사형 언어이다. 그렇다면 한국어의 동사 어휘화 과정은 어떠한 특징을 갖는지 살펴보자.

2. 경로(Path)의 어휘화

이러한 어휘화 유형이 결과구문의 술어에 해당하는 경로의 의미요소를 어떻게 어휘화하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동사형 언어인 영어는 다음 (13a, b, c)의 예문에서 보듯이 동사 ‘float’ 만으로는 방법의 의미만을 전달할 뿐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전치사, 불변화사(particle)이다. 반면에 위성형 언어에 해당하는 스페인어는 (13d, e, f)에서와 같이 움직임의 방향이 동사 자체에서 표현된다.

- 13) a. The bottle floated through the pipe.
 b. The balloon floated down the chimney.
 c. The bottle floated across the canal.
 d. La botella pasó por el tubo flotando.
 e. El globo bajó por la chimenea flotando.
 f. La botella cruzó el canal flotando.

(Talmy 2000, 50)

스페인어는 움직임과 경로가 주 동사에서 표현되어 ‘pasó’, ‘bajó’, ‘cruzó’가 각각 ‘통과했다’, ‘내려갔다’, ‘건너갔다’로 해석되지만 영어는 이 의미가 모두 ‘through’, ‘down’, ‘across’에서 표현되고 주 동사는 단지 ‘떠갔다’는 방법의 의미를 표현한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13d, e, f)에서 보듯이 움직임의 방법이 ‘flotando’로 도출되고 있어, 방법의 의미를 부가적인 요소로서 도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 a. La botella entró a la cueva (flotando).
 b. Mary-ka cip-ey (ttwi-e) tul-e-ka-(a)ss-ta.
 c. Juan {corrió/*anduvo/*gateó} a la tienda.
 d. *Mary-ka cip-ey (ttwi/kel)-ess-ta.

(Son & Svenonius 2008, 388)

스페인어와 마찬가지로 한국어 역시 방법이 경로와 함께 동사에 융합되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ib, d)를 통해 알 수 있다. 동사 ‘뛰다, 걷다’는 그 자체로 방향의 요소 ‘집에’와 병합될 수 없다. 반드시 ‘가다’, ‘오다’ 등의 이동 동사와 결합되어야만 목표의 논항을 취할 수 있다. 한국어는 ‘뛰었다, 걸었다’라는 방법의 동사만으로는 경로를 표현할 수 없으며, 방법은 부가적으로 표현하고 움직임의 동사를 경로와 융합하는 어휘 형성의 과정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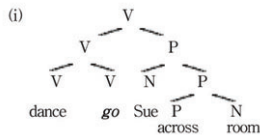
두 언어의 방향성 표현의 차이를 다음의 예문을 통해 살펴보자.

- 14) a. Sue danced across the room.
 b.*Sue bailó a la habitación.
 b. Sue entró en la habitación bailando.

(Mateu & Rigau 2002, 218-223)

영어는 ‘danced across’가 ‘춤을 추며 들어갔다’는 의미를 나타낸다.⁶⁾ 그러나 스페인어는 ‘bailó’가 ‘춤을 추었다’는 의미만을 나타낼 뿐, 전치사 ‘a’가 동반되어 ‘들어갔다’는 의미를 표현하지는 않는다. (14c)와 같이 스페인어는 동작과 경로를 주 동사에서 표현하고 움직임의 방법을 부가적 요소로 별도의 도출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스페인어는 영어와 같은 결과구문의 형성이 불가능하였다. 결과의 의미를 표현하는 술어는 경로의 요소와 동일한 위치에서 생성되는 결과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가정할 때, 스페인어는 이 결과적 요소가 주 동사에 융합되어 표현되는 언어로서 형용사 결과구문의 도출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⁷⁾ 이로서 부가적 요소로 결

6) Mateu & Rigau(2002)는 영어와 같은 위성형 언어는 어휘 형성의 구조에서 상태의 전이를 표현하는 동사(transitional verb)가 음성적으로 발현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방향의 공간적 관계는 PP에서 생성된다고 분석하고 다음의 구조를 제안한다.



‘dance’는 ‘go’와 융합되고 음성적 자질이 없는 ‘go’는 발화되지 않고 ‘dance’의 발화만으로 원인의 관계(causal relation)와 전이의 관계(transitional relation)가 모두 표현된다.

7) 스페인어가 동작의 목표, 즉 종착점을 동사 자체에 융합하여 표현하는 동사형 언어라는 점은 사건이 정점에 이르렀음을 접어(clitic)로 표현하는 다음의 현상을 설명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i) a. Juan dio las flores a María.
 b. Juan le dio las flores a María.

대상이 목표에게 전달되어 완료되는 최종 사건까지 표현하기 위해 움직임과 경로가 동사에 융합되는 언어인 스페인어는 목표의 PP를 동사에 융합하여 발화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과술어가 별도의 도출을 하는 영어와의 차이를 어휘화의 과정에 따른 분류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⁸⁾⁹⁾

- 8) Berman, R. A. & Slobin, D. I.(1994)는 동사형 언어를 사용하는 화자와 위성형 언어를 사용하는 영어 화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움직임 동사의 사용을 조사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영어화자는 절 내에서 경로를 묘사하고(the deer threw them off over a cliff into the water.), 방법(crawl, swoop, tumble..)과 원인자(dump, hurl, shove...)도 명시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에, 동사형 언어 사용자는 경로와 방법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고 주인공과 대상의 위치와 움직임의 종착점을 더 묘사하려는 경향을 나타냈다.
- 9) 동사형 언어에 해당하는 한국어는 움직임과 방법이 융합된 동사의 도출은 불가능하지만 결과구문의 도출은 가능하다(Snyder 2001; Beck & Snyder 2001).

(i) a. Inho-ka kkangthong-ul napcakha-key twutulki-ess-ta.

Inho-NOM can-ACC flat-KEY pound-PAST-DC

'Inho pounded the can flat'

b. Yenghi-ka sikhthak-ul kkeykkusha-key takk-ass-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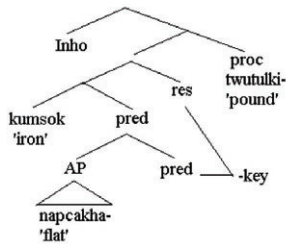
Yenghi-NOM table-ACC clean-KEY wipe-PAST-DC

'Yenghi wiped the table clean'

(Son & Svenonius 2008, 391)

이러한 결과구문에 대해 Washio(1997)는 '깡통을 납작하게 두들겼다', '식탁을 깨끗하게 닦았다'와 같은 구문은 약 결과술어구문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 두들기는 행동, 닦는 행동으로 예상할 수 있는 상태를 결과술어로 도출하는 경우를 나타내며 동사형 언어는 이러한 약 결과술어구문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동사형 언어인 스페인어는 'martillar el metal plano', 'frotar la mesa limpia'의 결과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사결과구문과 약 결과구문을 구별해서 분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Son(2008)은 결과구문의 분석을 위해 Ramchand(2008)의 분석을 받아들여 더 세분화된 절의 의미 구조를 가정한다.



그리고 한국어는 Res[ult]와 Pred[ication]을 어휘화하는 요소 'key' 라는 형태소가 존재하여 Res를 독립적으로 어휘화하지 않고 동사를 포함하는 결과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영어는 Pro[cess]의 동사가 있고, Res, Pred는 영요소인 것이다.

IV. 핵심사건(core event)으로서의 결과술어구문

1. 핵심 사건과 종속 사건(subordinate event)

일반적으로 이차주술관계의 구문을 분석할 때 이차술어는 그 도출이 수의 적이라는 논의를 바탕으로 이차술어를 부가어로 분석해 왔다. 이는 묘사술어가 사용된 다음과 같은 구문에서는 의미-구조적으로 자연스럽게 부가적 주어-술어의 관계가 설명된다.

15) Juan tomó el café caliente.

‘후안이 커피를 마셨다’는 주 동사의 행위와 ‘커피가 뜨거웠다’는 상태는 서로 무관한 사건이다. 즉, ‘tomar’가 형성하는 일차주술관계와 ‘caliente’가 이루고 있는 이차주술관계는 각자의 주술관계를 서로 다른 공간에서 도출한 후 서로 병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들의 도출은 서로 평행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차술어 역시 완전하게 부가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과술어구문은 이와 다르다. 결과술어의 도출로 인해 문장의 의미에 변화가 발생한다. 과정(process)으로 해석되는 문장이 결과술어가 첨가됨으로 인해 전이(transition) 혹은 완성(accomplishment)으로 변화되는 상적 전이(aspectual shift)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 16) a. John hammered the metal for an hour/*in an hour.
 b.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for an hour/in an hour.
 (Wechsler 2005, 259)

(16a)에서 ‘hammered’는 단지 두드렸다는 행위만을 의미할 뿐이다. 이는 과정의 사건으로서 지속적인 시간의 부사구 ‘for an hour’와 함께 사용되어야 정문이다. 반면에 결과술어 ‘flat’이 도출되면 사건의 종착점을 표현하게 된다. 따라서 (16b)는 ‘두드려 판판한 상태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결과의 사건으로 해석되며, ‘in an hour’의 완료 시제를 표현하는 부사구와 함께 사용되어야 정문으로 판정된다.

결과술어구문은 주 동사의 행위로 인해 상태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을 표현한다. 이러한 의미구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7) [x CAUSE [y BECOME z] BY [x ‘verb’ y]]

결과구문은 ‘개체(FIGURE) y가 어떤 상태 z가 되도록(BECOME) 움직임을 야기(CAUSE)하다’ 라는 해석을 갖는다. 이때 주 동사로 발화되는 요소는 결과구문의 상태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소일 뿐이다. 결과구문의 핵심 사건(core event)¹⁰⁾은 AP/PP로 도출되는 결과술어가 보여주는 사건 ‘z’ 라고 할 수 있다. Tenny(2000)는 핵심 사건은 상태성(stativity), 기동성(inchoativity)과 연결된다고 보았으며, 이는 동사의 직접목적어의 상태가 변화됨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외적 사건이 야기(causation)라면 내적 사건(inner event)은 마지막 상태로 변화되거나 종결되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Tenny(2000), Talmy(1985; 2000)의 핵심 사건 논의를 받아들여, 스페인어는 핵심 사건에 기본 틀이 되는 사건인 움직임을 동사가 융합되어

10) Talmy(2000)는 이동 사건은 두 사건이 복합적으로 통합되어 일어나며 두 사건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의미자질인 경로가 두 사건을 핵심적으로 기술한다고 보았다.

(i) ...either the association entity can be considered the schematic core of the framing event. This will be called the core schema. ... This generalization can be particularized for an event of motion in space. Here, both the figural entity and the ground entity are each a physical *object*. The activating process, here of the transition type, constitutes motion. And the association function that relates the figural entity to the ground entity constitutes the *path*. The core schema here will then be either the path alone or the path together with the ground object.”

(Talmy 2000, 218)

이를 바탕으로 사건의 개념적 구조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ii) <Conceptual structure of the macro-event>

[Figural entity	Activating process	Association function	Ground entity]
(Transition/fixity)	└ Core schema ┘		
(Talmy 2000, 221)			

이러한 어휘화 유형의 개념을 받아들여 이동의 경로 자질이 어휘화된 구조가 목표의 PP 혹은 결과적 상태의 AP에 해당한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결과구문을 도출하고 방법의 요소는 (17)에서 보듯이 ‘BY [x ‘verb’ y]’ 에서 도출되는 종속 술어(subordinate predicate)로서 부가적 요소로서 기능한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영어는 방법의 종속 술어가 문장의 주 동사로 융합되어 발화되고 핵심술어가 부가적 요소로 도출된다고 본다. 이는 동사형 언어와 위성형 언어의 어휘화 과정을 결과술어구문의 형성에 적용한 것으로, 동사형 언어는 핵심 사건이 동사와 함께 융합되어 사상되며, 위성형 언어는 핵심 사건이 부가적 요소로 도출된다고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언어에 따른 결과구문의 형성의 경향이 상이한 것은 어휘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통사적 도출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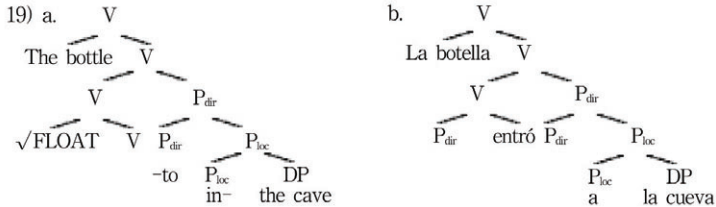
2. 결과술어의 구조적 도출

앞서 스페인어는 전형적으로 경로를 동사에서 표현하는 언어임을 여러 예문들을 통해 살펴보았다. 동사형 언어인 스페인어는 경로를 동사에 융합하여 어휘화한다. 따라서 결과구문의 형성은 동사 자체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형용사 결과술어를 별도로 도출하지 않아 결과구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 18) a. La botella entró a la cueva (flotando).
 the bottle MOVED-in to the cave (floating)
 ‘The bottle floated into the cave.’
 b.*La botella flotó a la cueva.
 the bottle floated to the cave
 c. La botella flotó en la cueva.
 the bottle floated in the cave
 ‘The bottle floated inside (*into) the cave.’
 (Gehrke 2008, 194-1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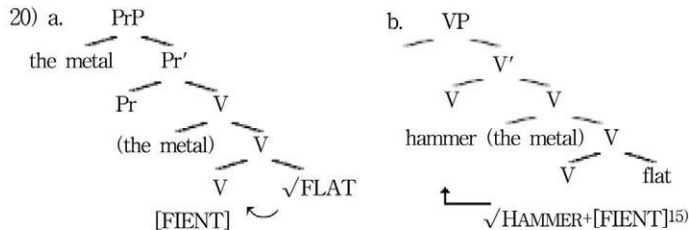
따라서 (18a)에서 경로와 움직임이 융합된 ‘안으로 + 갔다’ 는 ‘들어갔다’ 는 ‘entrar’ 로 발화되고 ‘뜬 상태로’ 라는 방법은 부가어로서 ‘flotando’ 로 도출된다. 결과의 의미는 어휘화된 주 동사에 이미 융합되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사형 언어는 움직임의 동사가 경로를 나타내는 전치사

구 PP와 병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18a)의 ‘a la cueva’는 어떻게 분석해야 할지 생각해 보자. Fábregas(2007)는 동사 ‘flotar’를 어휘적으로 방법의 움직임을 내포하고 있는 동사로서 경로의 요소를 포함하지 않고 어휘화되어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를 취할 수 없다고 분석한다. 한편, Mateu & Rigau(2010)는 경로의 요소가 동사에 융합되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경로를 위치와 방향으로 더 세분하여 ‘entrar’ 동사와 같은 경우는 P_{dir}가 영요소(null)라고 분석한다.¹¹⁾ 그렇다면 (18a)는 P_{dir}가 동사로 융합되고 ‘a la cueva’는 P_{loc}로서 발화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¹²⁾¹³⁾ 그리고 (18c)의 ‘flotar’ 동사는 방법과 움직임이 융합되고 P_{dir}가 영요소로서 P_{loc}로서 ‘en la cueva’가 발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위성형 언어인 영어는 경로를 어휘화하는 어휘요소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이며 스페인어와 같은 동사형 언어는 장소의 범주를 어휘화할 수 있는 요소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영어와 스페인어의 경로의 어휘화 요소에 대한 상이한 어휘화 과정은 Mateu & Rigau(2010)가 제안한 다음의 통사적 구조의 차이를 통해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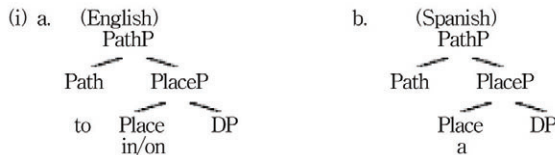
- 11) Koopman(2000)의 분석을 따라 P의 범주는 두 개의 다른 핵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위치의 투사(locative projection) PlaceP와 방향의 투사(directional projection) PathP로 이루어지며 영어의 방향 전치사 ‘into’는 PathP를 어휘화한 ‘to’와 PlaceP를 어휘화한 ‘in’으로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 12) 이러한 융합은 Mateu & Rigau(2010)에서는 Washio(1997)를 받아들여 약 결과구문을 형성하는 언어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 13) Fábregas(2007)의 분석을 통해 보면 전치사 ‘a’를 취하는 방법의 움직임 동사예를 들어 volar, correr, deslizar(se), subir, avanzar, cojear, gatear, etc.-들은 동사 자체에 움직임과 함께 PathP를 내포하고 어휘화되는 경우들로 동사에 경로의 의미가 융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때 함께 동반하는 전치사 ‘a’는 Path가 아닌 PlaceP의 핵이 어휘화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따라서 이들 구문을 통해 스페인어가 ‘움직임 + 경로’의 동사형 언어라는 Talmy(2000)의 분석이 옳지 않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같이 완료성(telic)을 나타내는 요소인 경로를 어휘화할 수 없는 언어는 이차술어를 통한 결과구문도 만들 수 없는 것이다.¹⁴⁾ 언어에 따라 나타나는 어휘 형성과정의 차이 때문에 앞서 (1), (2)의 예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용사 이차술어로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일반적 결과술어구문을 스페인어는 형성할 수 없는 것이고 영어에서는 가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결과술어구문의 구조적 도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자 한다.



앞서 살펴본 Tenny(2000), Talmy(1985; 2000)의 핵심사건 분석과 움직임 동사의 어휘화 과정의 분류를 받아들여, 본 연구에서는 변화된 상태를 표현하는 이차술어와 그 주어인 문장의 직접목적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주술관계가 결과술어구문의 핵심 주술관계(core predication)라고 가정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20)에서 [the metal-flat]이 먼저 도출된다고 가정하며 (20a)와 같이 형용사를 복사하여 동사에 병합하여 V+A로서 어휘화되면 √FLAT은 형용사 파생동사

14) Son(2009)은 스페인어에는 영어의 완료성 경로 전치사(telic PathP) 'to'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스페인어에서 방향의 움직임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영어의 'to'와 호환하여 사용되곤 하는 'a'는 장소의 전치사(static locative P)라고 분석한다.



15) Embick(2004)은 [FIENT](fientive)자질을 전이(transition)의 사건을 나타내기 위한 BECOME-운용자로 제안하였다. 이 자질을 통해 동사는 결과술어 'flat'을 취할 수 있다.

'flatten' 으로 발화되는 결과구문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20b)와 같이 변화된 상태의 술어가 형용사로 도출되고 방법의 동사 √HAMMER와 [FIENT] 자질이 융합되면 형용사 이차술어를 동반하는 결과술어구문이 도출된다.

반면에 스페인어는 영어와 같은 결과술어구문이 비문이다.

- 21) a. *El herrero martilleó el metal plano.
 b. El herrero martilleó el metal hasta que se puso plano.
 c. El herrero aplanó el metal golpeándolo.

(Demonte 2002, 127)

방법의 의미요소가 부가적 요소로 도출되고 결과의 요소가 동사와 함께 어휘화되는 스페인어는 방법의 요소를 주 동사로 표현한 (21a)가 비문이 된다. 그리고 (21c)와 같이 결과의 형용사가 동사에 융합된 형용사 파생동사 'aplanar' 를 통해 변화된 상태의 핵심 사건을 주 동사로 도출하고, '치다', '두드리다' 라는 방법의 의미요소는 종속 술어(subordinate predicate)로서 부가적 요소로 도출시킨 경우는 정문이 된다. 따라서 스페인어의 형용사 파생동사의 경우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차술어가 동사에 융합되는 통사적 어휘화 과정을 거쳐 결과의 의미를 갖는 동사가 형성된 구문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페인어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술어가 도출되는 위치에 동사의 동작과 유사한 의미의 술어가 반복되어 도출되어 결과의 상황을 부연 설명해 주는 일종의 유사 결과구문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앞서 언급하였다. 이를 Washio(1997)는 소위 약한 결과구문의 한 형태라고 언급하였고 동사형 언어의 특성이라고 보았다.¹⁶⁾

- 22) a. Durmió una siesta bien dormida.
 b. Masticó el pollo chiquitito.

(Demonte y Masullo 1999, 2493)

이때 (22a)의 구문은 동족 술어(cognate predicate)를 이용한 구문으로 이

때는 반드시 수식어가 동반되어야 한다. 그리고 주 동사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와 동일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 더 진행되었음을 나타내는 이차술어가 도출된 (22b)는 하위 술어(hyponymous predicate)라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술어는 어휘화 과정에서 동사에 융합되는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이차술어를 복사하여 별도의 주술관계를 생성하여 부가적으로 병합된 것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이들 술어는 결과의 최종 상태를 나타내는 핵심 사건의 술어가 아니라고 본다. 이는 이들 술어의 도출이 주 동사의 결과에 어떠한 상태의 변화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 동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문장의 의미를 바꾸는 술어라기보다는 이미 도출된 결과의 요소를 수식하는 수식어로 기능한다고 본다.¹⁷⁾ 이미 동사의 어휘화 과정에서 상태의 변화된 결과의 의미는 완성되었다고 보며 이들 술어는 마지막 상태의 반복 혹은 강조를 위한 부가적 요소라고 본다. 동사형 언어인 스페인어는 경로를 동사에 융합하여 어휘화한다. 따라서 결과구문의 형성은 동사 자체에 융합되어 발화되고 형용사 결과술어를 별도로 도출하지 않는다. ‘Cause +

16) Washio(1997)는 약 결과술어구문의 도출이 불어의 경우는 더 제한적이라고 언급한다. 같은 로망스 언어라고 해도 다음의 예문에서 보듯이 이태리어와 스페인어와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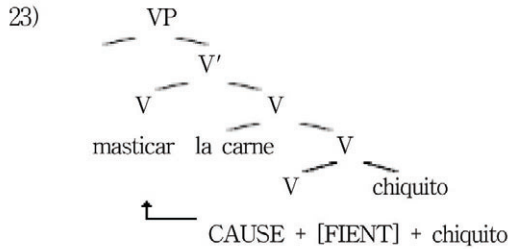
- (i) a. Mary dyed the dress pink.
- b. Mary-ga doresu-o pinku-ni some-ta.
 ‘Mary dyed the dress pink.’
- c. *J’ ai peint le mur rouge.
 ‘I painted the wall red.’
- d. Ha dipinto la macchina rossa.
 ‘He painted the car red.’
- e. Juan pintó la casa roja.

(Washio 1997, 10-29)

‘칠하다, 염색하다’의 의미로 예상할 수 있는 색의 형용사가 이차술어로 사용된 (i)의 구문들을 약 결과술어구문이라고 가정할 때, (ic)의 불어 예문을 제외한 영어(ia), 일어(ib), 이태리어(id), 스페인어(ie)의 예문은 모두 정문으로 판정된다. 그러나 Washio(1997)는 이를 불어와 이태리어가 약 결과술어구문을 받아들이는 정도가 영어와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며, 불어 역시 약 결과구문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17) ‘Durmi? una siesta bien dormida.’는 ‘Durmi? bien una siesta.’와 ‘Mastic? el pollo chiquitito.’는 ‘Mastic? bien el pollo.’와 유사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FIENT] + Path(Adjective of change of state)’ 는 모두 융합되어 결과의 의미를 나타낸다. ‘masticó la carne’, ‘lavó la camisa’, ‘durmió una siesta’ 등은 완료된 의미를 표현하며, 동족 술어는 부가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2b)와 같은 구문은 경로와 움직임이 융합된 ‘잘게 + 잘랐다(갈았다)’가 ‘씹었다’ 라는 의미의 동사 ‘masticar’ 로 어휘화된다.¹⁸⁾



280
281

융합의 어휘화 과정을 겪어 ‘잘게 잘랐다’ 는 ‘√cortar + chiquito’가 ‘masticar’ 로 어휘화되었고, 경로의 요소 ‘chiquito’ 를 복사하여 부가적 주술 관계를 형성하여 부가어로서 병합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Juan masticó el pollo muy chiquito.’ 혹은 ‘Juan masticó el pollo chiquitito.’ 로 도출하는 것이다. 즉, 동사형 언어의 경우, 어휘 형성과정에서 동사에 융합된 변화된 상태의 요소를 수식하기 위해 이를 복사하여 부가적 요소로 반복하여 도출함으로써 수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결과의 요소가 반복된 유사결과구문은 어휘화로 경로 혹은 결과의 요소를 동사에 융합하는 동사형 언어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왜 동사형 언

18) 위성형 언어인 영어는 ‘hammer’ 에 이미 방법이 융합된 동사를 형성하였고 방법의 요소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나 수식을 위해 (ib)와 같은 구문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다. 방법의 요소를 그대로 반복한 (ia)의 예문은 좀 어색한 문장이고 명시적 수식어가 도출된 (ib)는 정문이 된다.

(i) a. ?Lola hammered the metal with a hammer.
 b. Lola hammered the metal with a ball-peen hammer.
 (Haugen 2009, 256)

어에서 유사결과구문이 나타나는지를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¹⁹⁾

V. 결론

본 연구는 스페인어가 다른 언어, 특히 영어와는 달리 ‘개체(FIGURE)가 어떤 상태가 되도록(BECOME) 움직임을 야기(CAUSE)하다’의 해석을 갖는 형용사 결과술어구문을 형성할 수 없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특별히 결과술어구문은 문장의 주 동사와 형용사 결과술어 사이에 어휘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부가어로서의 이차술어 분석으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없으며 결과구문의 형성에 어휘-통사적 분석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결과술어의 의미요소는 경로의 의미요소와 동일한 특성을 갖고 있다는 논의를 바탕으로, Talmy(1985; 2000)의 동사형 언어와 위성형 언어의 분류를 통해 스페인어가 동사형 언어로써 경로 혹은 결과의 요소를 동사에 융합하는 어휘화 과정을 갖는 언어라고 가정한다. 나아가 일반적으로 부가어로 생각해 왔던 결과구문의 형용사 이차술어는 핵심술어로서 스페인어는 이 핵심술어를 주 동사에 융합하여 발화하는 언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통해 스페인어를 비롯한 동사형 언어에서 나타나는 유사결과구문에 대한 일관된 설명을 가능하게 하였다.

19) Snyder(2001)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어는 모두 형용사 술어를 통한 결과구문이 가능한 언어라고 언급한다. 그러나 이는 주 동사가 행위의 종착점을 강조하는(focusing on the endpoint)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때 형용사는 주 동사의 종착점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만드는 역할만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페인어와 이탈리아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예문에서 보듯이 추가적인 정도(degree)의 수식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i) a. Gianni ha martellato il metallo *piato/ piatto piatto.
John hammered the metal *flat/ flat flat.
b. Gianni ha sciolto il cioccolato *liquido/ troppo liquido.
John melted the chocolate *liquid/ too liquid.’

(Folli & Ramchand 2005, 102)

참고문헌

- Beck, Sigrid & William Snyder(2001), "Complex predicates and goal PP's: Evidence for a semantic parameter," in Anna H. J. Do, Laura Domínguez & Aimee Johansen(eds.), *Proceedings of the 25th Annual Boston University Conference on Language Development*, Vol 1, Somerville: Cascadilla Press, pp. 114-122.
- Berman, R. A. & D. I. Slobin(1994), *Relating events in narrative: A crosslinguistic developmental study*,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Demonte, V.(1991), "Temporal and aspectual constraints on predicative adjective phrases," in Héctor Campos & Fernando Martínez-Gil(eds), *Current studies in Spanish linguistics*, Washington D.C.: Georgetown University Press, pp. 165-200.
- Demonte, V.(2002), "Preliminares de una clasificación léxico-sintáctica de los predicados verbales del español," in S. Grosse and A. Schönberger(eds.), *Ex Oriente lux: Festschrift für Eberhard Gärtner zu seinem 60. Geburtstag*, Frankfurt am Main: Valentia, pp. 121-144.
- Demonte, V. & P. J. Masullo(1999), "La predicación: Los complementos predicativos," in I. Bosque & V. Demonte(eds.), *Gramática Descriptiva de La Lengua Española*, Madrid: Espasa, pp. 2461-2523.
- Embick, D.(2004), "On the Structure of Resultative Participles in English," *Linguistic Inquiry*, Vol. 35, No. 3, pp. 355-392.
- Fábregas, Antonio(2007), "An Exhaustive Lexicalisation Account of Directional Complements," in Monika Bašić, Marina Pantcheva, Minjeong Son and Peter Svenonius(eds.), *Tromsø Working Papers on Language & Linguistics Nordlyd*, Vol. 34, No. 2, Tromsø: CASTL, pp. 165-199.
- Folli, R. & G. Ramchand(2005), "Prepositions and Results in Italian and English: an Analysis from Event Decomposition," in H. Verkuyl, H. De Swart & A. van Hout(eds.), *Perspectives on Aspect*,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pp. 81-105.
- Gehrke, B.(2008), *Ps in Motion: On the Semantics and Syntax of P Elements and Motion Events*, LOT Dissertation Series, Netherlands Graduate School of Linguistics.

- pp. 324-342.
- Son, Minjeong(2008), "Resultatives in Korean, Japanese and English: Revisited from a Micro-Parametric Approach to Linguistic Variation," *Ms.*, Tromsø: CASTL.
- Son, Minjeong(2009), "Linguistic Variation and Lexical Parameter: The Case of Directed Motion," *U. Pen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Vol. 15, No. 1, pp. 213-222.
- Son, Minjeong & Peter Svenonius(2008), "Microparameters of Cross-Linguistic Variation: Directed Motion and Resultatives," *Proceedings of the 27th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Somerville, MA: Cascadilla Proceedings Project, pp. 388-396.
- Talmy, L.(1985), "Lexicalization patterns: Semantic structure in lexical forms," in Timothy Shopen(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 Clause Structu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57-149.
- Talmy, L.(2000), *Towards a Cognitive Semantics II: Typology and Process in Concept Structuring*, Cambridge, MA.: MIT Press.
- Tenny, C.(2000), "Core events and adverbial modification," in C. Tenny & Pustejovsky(eds.) *Events as Grammatical Objects*, CSLI Publications, pp. 285-334.
- Washio, Ryuichi(1997), "Resultatives, compositionality and language variation,"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Vol. 6, pp. 1-49.
- Wechsler, Stephen(2005), "Resultatives Under the 'Event-Argument Homomorphism' Model of Telicity," in N. Erteschik-Shir & T. Rapoport(eds.) *The Syntax of Aspec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 255-273.

유 은 정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219-295
patricia5@hanmail.net

논문투고일: 2011년 3월 26일
심사완료일: 2011년 4월 11일
게재확정일: 2011년 4월 22일